

아리아나 그란데, '성추행 피해' 주장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성추행 당했다고 그의 팬들이 주장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지난달 31일 디트로이트 그레이터 그레이스 템플에서 열린 '소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장례식에는 스티비 원더, 아리아나 그란데, 빌 클린턴-힐러리 클린턴 부부 등이 참석해 고인과의 이별을 슬퍼했다.

하지만 경건해야 할 장례식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성추행 피해 의혹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아리아나 그란데와 함께 추모사를 진행했던 한 목사가 아리아나 그란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영상에서 목사는 아리아나 그란데를 한쪽 손으로 감싸고 있다. 그런데 목사의 손 위치가 점점 아리아나 그란데의 가슴에 가까워지고, 자신 쪽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 아리아나 그란데 역시 살짝 불편한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팬들은 트위터에 '아리아나를 존중하라(Respect Ariana)' 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성추행에 항의했고, '아리아나를 존중하라' 는 팬들의 해시태그는 전세계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아레사 프랭클린은 체장암으로 지난 8월 16일 세상을 떠났다. 아레사 프랭클린은 그래미어워즈에서 18번 수상하고, 전 세계적으로 7,500만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했다. 또 17곡이 빌보드 TOP10에 올랐고, 20곡이 R&B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소울의 여왕'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나탈리 포트먼 "학교 총기난사는 내전이자 테러"

학교 총기난사를 소재로 한 영화 '복스 룩스'의 주연을 맡아 75회 이탈리아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할리우드 배우 나탈리 포트먼(37, 왼쪽)이 미국 학교에서 빈발하는 총기난사 사건을 '내전이자 테러'에 비유했다.

포트먼과 주드 로가 주연한 '복스 룩스'는 올해 베네치아 영화제의 경쟁 부문 후보에 올랐다.

포트먼은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키는 부모들은 (같은 총기난사를 보며)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 이는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일종의 내전이자 테러이다."라며 "불행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포트먼은 '복스 룩스'에서 어린 시절 끔찍한 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겪고 살아남은 여주인공 '셀레스트' 역을 맡았다. 영화는 셀레스트가 희생된 학우들을 추모하는 노래를 부른 것을 계기로 가수로서의 커



리어를 쌓아나가 팝 디바로 성장하는 모습을 다룬다.

연출과 각본을 맡은 브레이디 코벳 감독은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잠들 수 없는 밤들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 영화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내야 했던 사건들에 대한 시적 반추"라고 밝혔다.

H.O.T. 콘서트, 상표권 논란

아이돌 그룹 H.O.T.가 17년 만에 여는 콘서트가 때아닌 상표권 논란에 휘말렸다.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는 공연 주최사인 솔티노베이션과 상표권 사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씨는 1990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2004년 SM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솔티노베이션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 요청 및 사용 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 적정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H.O.T.의 공연 홍보대행사 측은 "H.O.T.의 그룹명이나 로고를 사용한 것은 콘서트 공연을 하는 가수가 H.O.T.라는 것을 나타낸 것일 뿐"이라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로서는 공연을 열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H.O.T. 다섯 멤버들은 다음달 13일과 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Forever H.O.T.'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H.O.T.가 2001년 2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마지막 콘서트 이후 17년 만에 열리는 단독 공연이다.

솔티노베이션은 콘서트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1228호 숫자퍼즐 정답									
9	3	2	1	4	6	8	5	7	
1	4	5	2	8	7	9	6	3	
6	8	7	3	5	9	1	2	4	
2	5	9	6	7	4	3	8	1	
4	6	3	8	1	5	2	7	9	
7	1	8	9	2	3	5	4	6	
3	2	1	4	6	8	7	9	5	
8	7	6	5	9	1	4	3	2	
5	9	4	7	3	2	6	1	8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40대의 남성과 인생 상담을 하면서 필자가 그분의 사주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팔자를 보면 경제적으로 유복했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주가 되지만 어린 시절 부친과는 일찍 인연이 멀어졌을 것이고 그래도 모친 덕에 지금까지 살아온 팔자가 됩니다. 선생님의 사주의 특징은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기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팔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서는 부친이 사업을 해서 잘 살았었는데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의 가세가 기울고 저의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저희 형제들을 키웠습니다. 다행히 다른 형제들은

모두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만 이곳 미국에 와서 기술자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의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저만 이곳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원장님 저는 언제나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 이어서 필자가 해준 이야기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타고난 팔자대로 분수(分數)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팔자는 그래도 훗날 자식들이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이고 노후에는 성공해서 잘 사는 자식을 둔 부모가 더 행복한 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않아도 형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맨날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싸우고 사고나 치고 다녀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훗날 잘 살까요?"라고 묻는다. 그래서 필자가 해준 이야기는 "선생님 팔자는 그래도 훗날 자식이 크게 성공해서 자식덕을 보는 팔자입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